

# 일제강점기 미디어를 통해 본 한센정책과 소록도갱생원\*

서 기재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발행된 잡지와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한센정책의 실체와 그 내용을 살펴본다. 근대의학의 후발주자였던 일제는 조선 내 한센사업 과정에서 서양 선교사들을 의식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조선인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했으며, 이는 한센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용되기도 했다. 또한 조선 사회 내에서도 한센인은 사회적 문제로 여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중의 참여가 요구되었다. 조선 대중들은 한센인들에게 동정 혹은 혐오의 감정을 발산했는데, 이는 비환자나 환자까지도 격리생활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당시 일제의 절대격리 정책과 일반사회의 동정/혐오, 그리고 환자의 생활고가 만나 완성된 장소가 소록도갱생원이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절대 격리의 섬 구축이 일본최대의 선정(善政)이라고 불리며 문화적 자원화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키워드 : 한센병, 소록도갱생원, 일제강점기, 미디어, 전시

---

## 목 차

---

서론

제1장 식민지의학과 조선인의 ‘감정’ 발견

제2장 사회적 낙인과 대중의 움직임

제3장 조선인의 참여에 대한 일제의 ‘포장’

제4장 문화적 자원으로서 소록도갱생원

결론

---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1875).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KU연구전임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과제임.

## 서론

식민지의학(Colonial Medicine)은, 근대 식민지주의의 전개 속에서 종주국이 식민지에 대해서 행하는 공적인 의료(見市雅俊, 2001: 26)로, 정상적인 교과서나 교육내용, 근대적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대의료에 반하여 일정한 통치 공간 속에서 자리 잡은 특수한 의료이다(池田光穂, 2003: 119-122). 좀 더 구체적으로, 식민지의학은 식민지 경영을 유지하고, 그 존속을 위해 종주국에서 행하는 의료서비스이자, 가시적인 정치권력의 행사 이상으로 중요한 통치 기술이었다. 이는 종주국이 식민지에 있어서 질병에 대한 치료실천과 의료행정을 전개하고 조사 연구를 행하며, 그 정보와 지식을 본국으로 회수하고 집적하며 그것을 제국확장에 환원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계획적인 것이었다(奥野克巳, 2006: 27). 그 때문에 일제의 조선에서의 의료사업에 대한 인식은 지배/피지배, 식민자/피식민자의 구도가 가해자/피해자라는 식의 스테레오 타입으로 이해되기 쉬웠다. 좀 더 광범위하게는 국가(일본제국)/국민(조선인 및 일본인)으로, 즉 지시하는 자(지식과 정보를 선점하고 있는 자)/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자(무지하여 방향을 모르는 자)로 양분하여 논의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패전 후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았던 일본대중과 피식민자였던 조선대중은 의심 없이 자신들을 오른쪽 편에 위치시키고, ‘당한자’로 자기규정 해왔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이름 없는 대중은 왼쪽과 오른쪽을 횡단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대 사회에 접어들어 이러한 대중은 그들이 속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개인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장소가 미디어 공간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한센정책은 이러한 미디어와 대중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예이다.

그간 일제강점기 한센병 관련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2005), 국립소록도병원(2005), 국사편찬위원회(2004; 2005)를 비롯하여, 김기주(2011), 김미정(2012), 김성리(2013), 서기재(2017, 2022), 이병례(2006), 정근식(1996; 1997ab; 2002; 2005) 한순미(2010), 후지노 유타카(藤野豊, 2001; 2006) 다키오 에이치(滝尾英二, 2001; 2002)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 그 내용은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센인의 구술이나 의료인에 대한 연구, 소록도 한센인의 강제노역과 인권침해, 소록도자혜의원 설립의 역사 등이다. 이러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나, 일제의 한센사업 주도권

장악 과정에서 미디어를 통한 대중과의 이해관계 형성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가 없고, ‘한센인 차별’을 가시화 할 때도 추상화된 식민지 지배자로서 제시할 뿐 일 제정책이 한센병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양상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제가 서양선교사의 의료사업을 비판하기도 하고 적절 히 이용하기도 하며 조선인의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당시 발행된 신문을 통해 조선 사회 내에서 한센인에 대한 비환자 조선인들의 동정/불안이라는 감정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파악한다. 이러한 과정을 파악 하는 것은 소록도가 격리된 한센인의 섬으로 구축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는 실 마리를 제공한다. 나아가 일제가 소록도를 ‘황후의 인자’ ‘일본 최대의 선정(善 政)’이라는 문화적 장치로 포장해 가는 한센정책의 세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장 식민지의학과 조선인의 ‘감정’ 발견

일본이 근대국가로 돌입하는 과정에서 중요시 했던 것 중 하나는 ‘문명 일본 인’으로서의 재 정의였다. 따라서 피식민자였던 조선인도 이와 같은 일본인 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가야 했다. 특히 근대 서양의학에 기반한 ‘우월한 인종’으로서 의 일본인의 재탄생은 서양과의 대결구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 조선총독부법무국 다케우치 하지메(竹内一)는 “우리 야마토 민족이 개인 및 사 회, 국가적으로 보다 위대한 비약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들의 혈액이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센병이 혈액의 순결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됨을 알 리고 있다(竹内一, 1932(4): 3). 제국 건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은 필수사항이었 고, 한센병은 순결한 혈통을 만들어내는 데에 저해되는 가장 저급한 질병으로 여 겨졌다. 그러나 ‘국제나회의’와 같은 곳에서 보고되는 식민지를 포함한 일본의 한 센인 수는 우월한 인종양성을 지향함에 있어 최대의 오점이었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세키야 데이사부로(関屋貞三郎)는 영국, 독일, 프랑스, 미 국 등의 한센인 수와 일본을 비교하고 ‘일본은 야만국에 가깝다<sup>1)</sup>’며 안타까움을

1) “문화가 뒤쳐진 남미나 아프리카 혹은 유감스럽게도 동양의 여러 나라 인도지나 일본 등에도 있 고, 필리핀 또는 남양 방면에도 나환자가 매우 많습니다. (중략) 이런 점에서 일본은 야만국에 가

토로한다. 의학박사 니시카와 요시카타(西川義方)도 1923년 국제나회의에서 발표된 일본(식민지 포함) 한센인이 세계 2위라는 통계에 “진보하는 의학일본으로서 는 건디기 어려운 결과이자 불명예로 (중략) 비문명국에 많은 나병의 박멸은 일본국가의 영예와 과학일본의 영예에 걸린 문제”라고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瀧尾英二, 2002: 309-310).

이처럼 근대 의학에 있어서 서양에 뒤져있다는 수치심은 기존에 미국과 유럽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조선의 기독교 한센병요양원<sup>2)</sup>을 견제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는 식으로 발현되었다. 우선 서양인의 조선 내 의료활동의 방식을 의식하고 있었다. 잡지 『朝鮮』에는 의학박사 에비슨(O.R.Avison)의 글을 전부 일본어로 번역하여, 서양선교사들은 조선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사업을 펼쳤고 이것이 전국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에 주목한다.<sup>3)</sup> 그리고 의사이자 한센병 연구자였던 무라타 마사타카(村田政太)는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조선을 시찰한 후, 『日本及日本人』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한다.

지금까지 일본의 위정자가 종교, 교육, 위생이라는 식민지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거의 돌보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중요한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서양선교사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략) 시급한 문제가 조선에서의 철저한 구라사업의 실시이다. 그것은 단순히 나병이 다른 질병보다도 훨씬 동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려니와 정치적 측면에서의 대외 선교사정책 있어서도

---

까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의 체면으로 보나 나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瀧尾英二, 2001c: 219, 번역 및 하선은 필자, 이하 동)

- 2) 1907년 부산에 나병원이 미국인 의료선교사 어빈(C.H. Irvin), 빈톤(C. C. Vinton), 스미스(W. E. Smith)에 의해 설립되고 스코틀랜드 출신 맥켄지(Mackenzie)가 1911년 원장이 되었다. 광주에서는 미국 장로회가 선교 목적으로 조선 한센인 전문요양소 건설을 추진하여 1912년에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았다. 1926년 광주나병원은 조선총독부의 강제명령에 의해 전남 여수로 이전했다. 대구지역에서의 한센병 관리는 선교사들이 설립 운영한 대구제중병원에서 1913년 3월 한센인 10명을 민가에서 분리시키는 형태로 출발했다. 이후 선교사들이 대영나환구제회에 지원을 요청하여 1917년 6월 경남 달성군으로 이전했다.(瀧尾英二, 2001b: 1)
- 3) 이 기사를 보면, 기독교 전도 사업의 중요한 방법은 복음전도, 의료, 교육으로, 의술을 이용한 전도가 조선의 궁정의 신인에서 출발하여 상류사회를 자극했으며, 궁정은 선교사에게 경성의 방역 운동의 전권을 위임하고 병원을 개설하게 전염병 유행을 막게 했고 이들의 활동은 점차 지방으로도 퍼졌다고 전하고 있다.(『朝鮮』, 1921(6): 29-30)

상당히 중대하다.”(村田正太, 1921(11): 33-34)

무라타는 “서양선교사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 때문인가!”라며 탄식한다. 의학 분야에서 서양의 종교가들의 주도권 선점은 식민지 통치에 있어 심각한 저해(沮害)요소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조선인의 심리도 모르면서 코앞의 이익만을 좇아 조선인들을 통치하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라며 조선인의 ‘심리 파악’에 주목한다(村田正太, 1921(11): 33). 조선 궁정의 신뢰가 선교사들에게 조선 내 의료 활동에 막대한 권력을 부여하고 서양선교사들에 대한 조선 대중의 감동이 한센정책의 실천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당시 조선 발행 신문 등을 보면 서양선교사에 대해 조선 대중이 감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4)</sup> 이러한 감동의 효과는 다른 조선인들에게 기부금 실천을 독려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무라타는 이와 같은 조선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조선의 구라사업에서 대중의 심리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러면서,

자선사업인 구라사업은 원래 누가해야 되는 것인가? 원래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종교가들이 출선하여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예수교도나 불교도도 이 숭고한 사업에는 손을 대려 하지 않는다. 박애를 표방하는 적십자도 애국부인회도 이런 화려하지 않은 일은 안하라고 한다.(村田正太, 1921(11): 34)

며 일본 종교계를 지탄한다. 또한 무라타는 서양선교사가 자선사업을 통해 조선인의 감성을 자극하여 민심을 사는 것이 일본의 조선인 동화정책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며, “나환자 구제의료사업을 외국인교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국가 체면의 문제를 떠나서 조선의 통치정책에 있어서 가장 치졸한

4) “나는 엉거(J. K. Unger) 씨의 숭고한 정신과 박애적 사업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칭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중략) 먼 곳의 이민족의 헌신적인 노력을 볼 때에 조선 민족된 자로서 어찌 감격스럽지 않을 것인가. 엉거 씨의 훌륭한 정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그의 건강을 축복하는 동시에 우리 민중의 적극적인 협조를 절하노라(『東亞日報』 1922.4.26).” 그리고 같은 지에는 “수만리 먼 곳에 와서 이와 같이 조선 사람의 악질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엉거 목사를 위한 후원의 기사(『東亞日報』 1922.4.24)도 실려 있다. 30년대에도 조선 대중은 윌슨(R. M. Wilson) 의료선교사를 추앙하며 꾸준히 서양선교사들의 감화에 대한 내용은 이어진다(『朝鮮朝日』 1933.2.9).

행동”(村田正太, 1921(11): 35)이라고 단언하고 국가(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다.

이처럼 조선 한센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조선인의 감정을 좌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조선 대중이 서양선교사나 한센병원 등, 질병을 다루는 주체들에 대해서는 감동하고 신뢰하고 있지만, 질병을 가진 환자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근대 신문이나 잡지는 이러한 대중의 한센인에 대한 이미지를 생산하고 대중의 반응을 살펴며 확대 재생산해 갔다. 한센인에 대한 조선인들의 감정의 실상은 어떤 것이었는지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 제2장 사회적 낙인과 대중의 움직임

식민지통치에는 앞서 무라타가 지적했던 것처럼 단순히 권력을 이용한 강압적 형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1919년의 3.1운동은 강압통치의 역효과였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필요조건이 생기게 된다. 우선 한센인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 형성을 꾀한 것은 조선총독부였다. 조선총독부는 각 도의 경찰부 위생과를 통해 한센인의 수를 파악하고, 각 도별로 한센인들의 ‘위생에 관한 풍습 및 미신요법’을 제출하게 했다. 그리고 조사와 단속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일본인 및 조선 지식인이 읽는 잡지에 소개했다.<sup>5)</sup> 그리고 조선의 각 신문에서도 한센인의 ‘인육이나 사람의 간 섭취 치료법’에 대한 미신적 맹신은 자주 보도되었다.<sup>6)</sup>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었는지 한센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내용을 조사

5) 잡지 『朝鮮』의 1929년 7월호(p.114), 8월호(pp.119-120) 9월호(p.121)의 도 경찰부 위생과 조사내용을 보면, 한센인이 사람의 살이나 간을 먹을 때 치료된다고 여기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6) 『東亞日報』에는 「나병자의 횡행 어린아해를잡고 무슨육을뵈이어(1920.8.6.)」, 「미신은 나라가 망하는 근본원인: 문둥이는 음경을먹어도 결단코병은낫지안는다 타과하라속히미신을!(1920.8.13.)」, 「12세 어린 아이 배를 갈라 간 적출(1927.3.15.)」, 「젊은이, 아이, 부인을 먹는 귀신(青春少婦食人鬼): 7세 여아를 죽여 먹음 악귀도 전율할 미신참극(1928.5.15.)」, 「나환자가 아이살인미수-병고친다는미신을밧고(1929.5.27.)」 등의 기사가 있으며, 『朝鮮日報』에는 「무덤을파헤치고 어린애송장을 먹어(1930.9.7.)」, 「문둥병자가 5세 아이를 죽여 경주에서 일어난 대소동 경악할만한 미신의 폐해(1931.9.1.)」 등의 기사가 보인다.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을 공유해 갔다.

<표 1> 신문에서 보이는 조선인의 한센인에 대한 심리와 대처

신문명	계재일자	기사 내용(모두 한글로 기록됨)
東亞 日報	<b>민간인의 위협으로서의 한센인과 이들의 격리에 관한 문제</b>	
	1927.10.31	「광주병원 여수로 이전 완료」
	1928.4.21	「부민을 위협하는 부산 나병환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 중에 전남지방으로 이송결정」
	1931.10.21	「도처에 병균을 전파하는 나병환자가 만팔천 명 인류사회에서 안정이 구축되어: 친척도 가정도 국가도 없는 인생 민족보건상의 최대문제」
	1931.10.26	「벼립바든 조선의 나환자 모던경성에도: 놀라운 문둥이 부락」
	1932.10.21	「경성부근의 나환자 전부 여수로 이송 비용천원을 기부로 받들터: 근절연구회 사업」
	1933.2.18	「불우의 나병환자 전남에 삼천오백만 명: 도위생과에서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500명 격증」
	1933.3.11	「나환자가 작대해 구걸: 민심은 극도로 불안 중, 남해 당국의 처치 기대」
	1933.3.14	「나환자요양소 소록도로 설치결정 토지매수 병사건축 착수 약 삼천 명 수용예정」
	1933.3.17	「나환자 등의 행상: 부민보건상의 위협 경찰당국의 엄중규제」
	1933.3.18	「소록도 토지매수 백만 원 기금으로 나병 수용소-주민의 안부를 염려」
	1933.4.9	「인습적 폐해 일소: 전조선나단체연합회 조직, 민중보건운동에 공헌」
	1933.5.17	「나병환자가 결속: 대구시민과 난투극-곤봉을 들고 함부로 날뛰어」
	1933.6.3	「영암 나병환자 덕진에 집중」
	1933.6.16	「민족 보건 상 가장 위협적인 2천여 명의 나환자 유량: 2천600여 명을 수용했으나 전조선 통계 만2천」
	1933.10.17	「백여 명의 나환자 횡행으로 군산부민 대 위협: 맹랑한 풍설을 듣고 모여든 무리 민중 위생상 큰 문제」
	1935.5.15	「공중목욕탕과 음식점에 나환자 태연하게 출입: 마산에 전유했을 그들의 행동 부민위생상 중대 문제」
	1935.9.12	「문둥병 = 라프레 한번 전염되면 고질! 조선의 환자 일만3천」
	1936.6.11	「소록도행을 거절당하고 고흥에 부유하는 나환자무리」
	1936.6.15	「시가지에 나환자무리 횡행: 도처에 문둥이 소동! 가정마다 불안 공포」

신문명	게재일자	기사 내용(모두 한글로 기록됨)
東亞日報	1936.6.18	「도시에서 쫓겨난 나환자 촌락 중심으로 집중: 인가에 다니면서 갖은 행패 울산경찰서 처리에 골머리」
	1937.9.8	「위생조선의 큰 암덩어리: 폐결핵, 나병의 위협」
	1938.12.12	「구례지방에 나환자 횡행: 주민들은 극도로 불안」
	1939.5.31	「전라북도 오수(獐樹) 지방에 나병환자 횡행: 주민, 당국의 선처 요망」
	1939.6.16	「문둥이 너무 많아: 경주시민 극도로 불안」
朝鮮日報	1931.9.3	「전남 보성에 나병환자 출현: 무리를 지어 작당하여 다니며 위협 당국에서는 수수방관만 해: 목욕과 개천의 물고기 주의」
	1933.5.1	「금년에는 해결해야 될 우리 지방중대현안-나병자의 메카 대구의 고뇌」
	1936.6.23-25	「인류의 행복을 뺏는 나병이라는 병」 3회에 걸쳐 연재.
<b>나환자에 대한 유언비어나 조처, 시민 자치 모임</b>		
東亞日報	1936.6.16	「(사설) 문둥병자와 유언비어: 부민의 자중을 바랍」
	1937.10.21	「나환자의 아이를 갑자기 퇴학 처분: 이유는 아동위생 강화책이라고 칠원(漆原) 공립보통학교」
	1934.4.1	「나환자 처치를 읍 회의에서 절규: 예산 늘여서 실시하라고 여수 읍민에 중대 문제」
	1932.1.22	「나환자 근절운동의 봉화: 나환자근절연구회의 첫 활동」

이상의 신문 내용을 볼 때 한센인에 대한 기술 방식은 ① 그 수가 많고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 ② 한센인들은 생존 혹은 치료를 위해 어디론가 ‘이동’하는 존재라는 점, ③ 갑자기 나타나 구걸을 하거나 잔인한 범죄까지 저지른다는 점이 부각된다. 따라서 자신의 주변에도 한센인이 언제든지 불쑥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된다. 이러한 불안감의 자극은 “공포의 표적이 되는 병”(東亞日報 1937.9.8)으로, 미디어와 대중이 결합하기 쉬운 지점을 만들어 갔다.

전남 보성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전남 3개소에 국가 병원이 있으나 수수방관만하고 있는 당국을 비난함과 동시에 적당한 처치가 있기를 갈망한다.(朝鮮日報 1931.9.3.)

문둥병자 수십 명이 동리(東里) 독진교 주변 시장을 점거하고 이곳저곳 노숙하고 있는바 (중략) 그 동네 인민들이 불쾌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한다.(東亞日報 1933.6.3.)

고흥시민에게는 일대위협이요, 큰 불행이다. 대중보건 측면에서나 자녀

교육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고흥군민은 다 같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東亞日報 1936.6.11)

이상과 같이 구체적인 지역과 그곳의 한센인의 위협에 대한 기사는 대구, 서울, 울산, 수원, 밀양, 여수, 칠원, 광주, 고흥, 남원, 당진, 진주, 경남 산청군 신등면 등 허다하다. 이는 각 지방 인사들의 정치적 과제가 되었다.

한센인에 대한 불안감은 그 감정이 증폭되어 ‘위협적인 존재’라고 느끼게 되고, 유언비어까지 만들어 내며, ‘범죄자 취급’을 하는 데까지 이어진다.<sup>7)</sup> 주변에서 잔인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한센인은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예를 들어 『朝鮮朝日』의 1933년 5월 18일에 「잘린 머리의 몸은 어디에」라는 기사로 게재되기 시작하여 6월 9일까지 실린 이른바 ‘잘린 머리(生首事件)’ 사건은 ‘기괴한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朝鮮朝日 1933.5.18). 이 사건은 실제로는 간질에 걸린 아들의 병을 낫게 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범죄였는데, 범인을 추측해가는 과정에서 사건의 잔인성을 거론하며, 한센인의 소행이라고 추정하고 한센인 집단을 마을에서 내쫓았다. 한센인에 대한 낙인 즉, ‘공동체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존재’라는 인식의 결과이다.

이런 낙인은 한센인을 생활고에 시달리게 했고, 마침내 스스로 갱생원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기까지 한다.<sup>8)</sup> 한센인이 수용소로 들어갈 때 지녀야하는 서류로 ‘민적등본’과 ‘환자에 관한 조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만 했고,<sup>9)</sup> 이송될 때에 자기의 식기 지참, 숙소의 이

7) 예를 들어 「소녀강간 납치 나병환자 무리 체포」(朝鮮日報, 1933.9.15.), 「소녀 살해하여 먹은 나병환자 무리 4명 체포」(朝鮮日報, 1933.9.24.), 「나환자 폭동 일으킨 후 잠입하여 부민을 위협」(東亞日報, 1933.9.27.) 등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8) 『東亞日報』에는 「문둥이 작당하여 종로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정: 주민의 학대로 굶어죽겠소」(1936.6.15.), 「백여 명의 나환자 도청 문 앞에 쇠도 소록도에 수용해달라고 요구 전남도청 한 때 소란」(1933.10.1.), 「이십여 명의 나환자 전남도청에 쇠도: 속히 소록도에 보내달라고 탄원」(1934.5.28)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고, 『朝鮮日報』에도 「부랑 나환자의 무리가 계속 전남으로 몰려온다: 소록도 낙원에 들어가기를 희망하여」(1933.12.10) 등, 이런 기사는 신문에 여러 차례 게재되었다.

9) 이 조서에는 본적, 현주소, 직업, 이름, 생년월일 외 한센병 종류 및 병증의 정도, 한센병 이외의 질병이 있을 경우 그 병명, 진단한 의사이름, 과거 진료를 받은 이력과 치료를 받은 이력, 배우자의 유무, 전과유무와 그 죄명, 휴대용품(소지금이 있으면 그 금액) 등을 기재하여 모든 신상이 공개되도록 하였고, 이중에 드는 여비도 각자가 지불했다. 이와 같은 환자의 송치 비용은 환자 부

불 소독 등 건강한 사람들과의 철저 분리가 명령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조선 각 지역의 유력자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발판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광주병원에서 600여 명의 환자를 수용하고 있었는데 (중략) 지방 인사들의 맹렬한 운동으로 인하여 여수군에 병원을 신축하고 (중략) 광주 시가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나쁘게 하여주던 나환자들이 보이지 않게 되리라더라.(東亞日報, 1927.1.31)

이러한 조선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은 ‘문명국 조선 건설’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졌다.<sup>10)</sup> 이와 같이 한센인 개인의 잘못이나 실수는 한센인 집단을 대표하는 성향으로 바뀌었고, 집단적 공포는 집단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변했다. 조선나예방협회(朝鮮癩子防協會, 1932년)<sup>11)</sup> 설립 이후는 더 조직적으로 지방 유력 인사와 단체를 섭렵하여 전 국민을 이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G. SEO, 2022: 45-67). 조선나예방협회가 가장 주력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음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예방 및 구료와 같은 사회적 대사업은 전 국민의 이해를 근거로 하여 민간에 유력한 단체의 담당자를 원조하거나 혹은 정부의 시설을 보조하여 관민일치(官民一致)일치 협력해야 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세계 각지의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유력한 단체를 조직하여 국민에게 동정을 호소하고 널리 재원을 모아 국고 및 도비(道費)를 마련하여 수용기관의 확장을 꾀하고 구라예방시설의 현실을 촉진하고 이 병의 근절을 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朝鮮總督府, 1935(10): 931)

### 1932년 조선나예방협회 발족 이후 조선의 신문에서도 조선의 지방자치단체의

담, 환자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피구호자의 부담으로 하고, 피구호자가 변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 부양의무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小串政治, 1921(8): 250-253)

10) “다른 문명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자에 대한 구제책이 법률로 제정되어 퇴치에 노력한 결과 거의 근절된 상태이나 우리 조선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시설이 없으므로 날이 갈수록 환자들이 증가할 뿐이라 한다.”(東亞日報 1931.1.21)

11) 1930년 12월에는 일본 내무성 위생국에서 『나병근절책(癩の根絶策)』을 발간하는데, 이후 이에 근거하여 한센병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931년 일본에서 ‘나예방협회’가 설립된 것에 이어, 1932년 12월에는 ‘조선나예방협회’가 설립되었다.

활동과 한센인 부랑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는 늘어난다. 그리고 민간 유력인사들은 한센인 퇴치를 위한 자치단체까지 자발적으로 결성했다.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1932년 발족)가 대표적인데, 이 단체는 모두 조선인이 주축이 되어 경성시내에서 방황하는 환자이송과 대책마련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와 동시에 ‘나환자근절연구회’도 결성되어 “조선의 이천만 민중이 이 인도적, 민중보건적 운동에 일대협력해주기를 바란다.”(東亞日報 1932.1.22)며 전 국민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한센인 퇴치단체는 조선 각지에서 결성되었고 ‘민중보건운동에 공헌’이라는 선전문구를 통해 각 지방 연합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東亞日報, 1933.4.9). 이러한 한센인 격리수용을 위한 조선 각지의 정치인과 지방 유력인사들의 활약은 대중의 적극적 기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신문에서는 조선인들의 이러한 적극적 참여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한다.

『朝鮮日報』: 「전북나병지부기부금, 팔만구천여 엔」(1933.1.7), 「경기도 관내 나예방 기부금 누계 오만육천여 엔」(1933.1.13)

『東亞日報』: 「소록도 토지매수 백만원 기부-주민의 건강을 염려하여」(1933.3.18)

『朝鮮朝日』: 「나예방협회의 기부금 양호」(1933.1.10), 「더 증가하여 1만 엔을 목표: 평양에서는 매우 좋은 성적인 나예방협회 기부금」(1933.1.11), 「구정에 일을 하여 나협회에 기금기부: 경남의 노동자들이 앞다투어」(1933.1.28), 「경남 나기금 마침내 육만 엔에 이르다」(1933.1.31), 「기부금은 세 배 의외의 좋은 성적」(1933.1.31)

『京城日報』: 「나환자의 구세주 조선나예방협회에 사회의 원조를 바란다」(1932.1.23), 「불쌍한 나의 구제에: 소녀들의 인정의 결정, 3200장의 걸레대금을 기부 부산고녀교의 아름다운 행동」(1933.3.17)

이러한 기사는 조선뿐 아니라 열도의 일본인에게 조선의 소식을 알리는 통로가 되었다. 조선의 이야기는 일본의 식민지라는 특수한 장소, 그리고 일본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적 사업에 참가하는 조선인의 행동이라는 ‘화제성’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일본인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기부금 사기행각도 일어났다.<sup>12)</sup> 일본에서 보기 어려운 조선인들의 집단적 적극적 참여는 정치적으로 이

12) 구마모토 출신의 일본인 2명(28세, 한명 경성거주, 한명 구마모토 거주)이 충남 조치원 식산은행에 방문하여 구마모토에 한센병원 짓는다고 기부금을 받아내기도 했던 것이 사기 행각으로 드러

용하기 적합한 소재로 선택되었다. 일제는 이에 대한 ‘포장’을 다시 한 번 시도한다.

### 제3장 조선인의 참여에 대한 일제의 ‘포장’

조선의 한센정책은 총독부의 주도 하에, 지방 유력인사들의 정치적 활동과 여기에 가담하는 조선대중의 참여라는 연결고리가 있다.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간 요소는 비환자 조선인의 한센인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이는 비환자 대중뿐만 아니라 한센인들조차도 격리된 삶에 대한 요구를 낳았고, 결국 총독부에서 목표한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조선인의 자발적인 기부금이라는 성과로 드러났다.

일제는 이러한 예상외의 성과에 대해, “민간에서 미증유의 동정(未曾有の同情)”, “일반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기부를 신청하는 사람이 속출”,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기부를 권유”, “종교단체는 다수의 신자에게 권유”, “모두가 경쟁하듯 기부에 참가”한다며 감탄한다.<sup>13)</sup> 그리고 이러한 조선 대중의 적극적 참여를 친황가의 한센사업의 결과인 것처럼 포장하였다. 황후 사다코(節子)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조선한센인 정책에는 ‘은사구라(恩賜救癩)’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되었다.

사다코는 식민지뿐만 아니라 일본 한센사업 전반에 관여한 일본 황실의 인물이다(滝尾英二 2001c: 1). 그녀와 관련된 한센사업은 민중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이미지로 포장되기 위해 ‘황태후의 자비’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기사는 수도 없이 많다.<sup>14)</sup> 일본의 주도하에 설립된 소록도갱생원도 친황가의 ‘은혜(慈惠)’가 부여된 장소로, 각종 신문에서도 이곳은 ‘친국’ ‘낙원’ ‘별천지’에 비유되기도 한다.<sup>15)</sup> 그

나기도 했다.(京城日報, 1938.6.2)

13) 이 내용은 『施政二十五年史』(朝鮮總督府 1935(10): 932, 933)와 『朝鮮癩子防協會事業概要』(西龜三圭編, 1935(10): 6)에서 인용하였다.

14) ○ 전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어 거액의 사회사업장려금을 하사하셨다. 이 깊은 자비로운 마음에 감격스러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朝鮮』 1929(11): 148).

○ 황태후폐하는 평상시에 물자를 절약하시어서 나환자를 위해 자비를 베풀어주시기에 그저 감격의 눈물로 목이 맵니다. 과거 1200년 전의 쇼무(聖武) 천황의 부인이신 고묘(光明) 황후의 존귀한 업적을 받드신 것에서 더욱더 감격스러움을 느낍니다(『朝鮮』 1931(3): 2).

○ 황태후 폐하는 평상시에 황송하웁게도 불행한 나환자에 대하여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계셔서(중략) 5년 동안 계속 하사금을 내리셔서 원조를 하고 계신데(『朝鮮』, 1935(12): 126)

15) ‘친혜의 소록도’(京城日報 1933.10.8.), ‘낙원’(朝鮮朝日 1935.2.26.), ‘소록도 낙원’(朝鮮朝日 1935.3.6.), ‘소록도는 낙원 환자의 친국’(朝鮮每日 1940.4.13) 등의 문구가 종종 확인된다.

녀는 천황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존재로 추앙되었고, 이러한 신격화된 존재의 ‘한센병 예방’을 위한 활동과 기부행위는 한센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광고로 빈번하게 노출(조선과 일본의 양측 공략)되었다. 사회사업잡지 『同胞愛』에는 황실의 자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일한병합 후 조선의 사회사업은 이상과 같이 황실의 하사금에 의해 처음 기초가 다져졌다. 지금까지 거의 한 두 개의 자선박에 단체가 맡아오던 조선의 사회사업은 황실에 의해 비로소 사회 연대의 정신에 기초를 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모두 황실이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신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日野春吉, 1936(9): 21)

서양선교사들에 의한 몇몇 단체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던 조선의 한센사업이 지방의 소도시까지 자발적인 사회연대를 이루고 견고한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은 모두 황실의 자비에서 비롯된 하사금에 기반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 황실은 조선 내 한센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서양의 의료기관에 은혜를 베푸는 주체로 묘사되기도 한다.

나 구제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 황실의 깊은 뜻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구, 부산, 광주 세 개의 병원은 모두 외국단체의 원조 하에 자선적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황송하게도 황실에서 사회사업 장려의 깊은 뜻을 가지고 1925년 이후 3병원에 대하여 하사금을 내리셨다. 그 은혜에 모두 감격하여 이 뜻을 황송하게 받들어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朝鮮總督府, 1935(10): 512)

조선에서 실제로 기부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나예방협회의 활동기인 1930년대 초중반인데,<sup>16)</sup> 그 이전부터 황실의 은혜로 한센정책이 구축되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선의 한센사업이 서양선교사가 지은 병

16) 실제로 1932년 조선나예방협회 설립 후 식민지의학은 크게 변모한다. 『조선나예방협회사업개요』를 보면, ‘조선나예방협회’는 “나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시설을 만들어 그 근절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西龜三圭編, 1935: 3)는 취지하에, 한센병 예방 및 구제의료에 관한 제반 사업의 후원 및 연락, 관련 시설, 조사연구 및 선정, 한센인 위안에 관한 시설, 그 외 예방과 치료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로 조선나예방협회 설립의 근저에 있는 것은 한센인 격리를 위한 시설 구축과 이를 위한 자금 마련이었다.

원을 후원할 정도로 발전과 안정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종종 ‘이왕전하’도 출현하여 조선의 상징적 수장도 이에 동조했다는 것을 알린다.<sup>17)</sup> 이처럼 조선 민중의 예상외의 기부를 천황의 하사금과 연결시켜 이야기하는 기사는 수 없이 많다.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清徳)는 기독교 한센잡지 『日本 MTL』에 「조선 소록도갱생원 낙성식」을 신는데 여기에서, “황태후폐하 및 이왕전하의 감사하기 이를 데 없는 배려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관민(官民) 각 사람의 열렬한 동정과 후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今井田清徳, 1935(11): 6)라며 황태후를 본받은 조선의 왕과 민간의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조선나예방협회 이케다(池田) 이사장은 『朝鮮公論』에서 조선에서 한센병 사업을 위한 기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관민 모두 이 기획에 찬조하여 술선하여 기부신청을 함과 동시에 친족이나 지인에게까지 권유하여 계속해서 기부 신청자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연말의 차가운 공기도 마다하지 않고 거리에 서서 일반 민간인에게 동정을 호소하여 모금하기도 하고 음악회를 개최하여 그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에서도 다수의 신자를 권유하여 기부금을 모으고, 또 소학교나 보통학교 생도들이 각자 적은 돈이지만 한두 푼씩 모은 것을 내놓거나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각자 5전이나 10전 썩 낸 돈을 모아 기부해 주었던 사실은 눈물 없이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池田清, 1933(5):35)

이케다는 조선인들의 기부 방식에서 눈물어린 ‘감동’을 끌어낸다. 그리고 기부 방식이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소속된 단체에 권유하는 식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조선나예방협회의 사업개요에서도 조선인의 기부는 초등학생, 가난한 사람, 죄수 등 나이, 빈부격차,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일본인에게는 찾아 볼 수 없는 “인정미(人情美)”에서 비롯된 “동정금(同情金)”이라고 칭찬한다.

1932년 11월 조선나예방협회의 설립취지 및 사업계획의 개요를 발표하자 관민이 모두 그 취지에 맞추어 관리들은 술선하여 일정한 규칙을 만들

17)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황송하게도 황태후폐하와 이왕전하께서 막대한 하사금을 전달해 주신 것은 본 회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삼가 감격할 따름입니다.(池田清, 1933(5): 36)

어 기부를 모집하고 표준이상으로 기부한 사람들도 다수 속출하여 (중략) 언말의 극심한 추위도 마다 않고 거리에 서서 동정금을 모집하는데 노력 하고 (중략) 실로 유례없는 아름다운 인정미의 발로이다.(西龜三圭編, 1935(10): 6)

심지어는 이러한 조선인을 거울삼아 일본인의 반성을 촉구하기까지 하는데, 예를 들면 시모무라 가이난(下村海南)은 『日本MTL』에서, “일본과 조선의 차이점에 대해 말하자면 나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下村海南, 1937(11): 2)이라며 일본과 일본인의 관심이 부족함을 언급한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에서는 만주사변 때, 상해에서 발생한 콜레라가 조선에 퍼지지 않은 이유는 조선의 위생조합, 의사회, 그 외 부민전체의 방역에 대한 이해와 활동 덕분이라며 칭찬하기도 한다(西龜三圭, 1938(1): 16-17). 이 외에 「조선총독부 시정 30년사」에도, 황태후 폐하의 하사금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 뒤 “직업 계급을 막론하고 그 취지에 대해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관민 모두 함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자가 속출”(朝鮮總督府, 1940(10): 385)했다고 되어 있듯이, 각 기관과 조선민간의 적극적 참여는 특기할만한 일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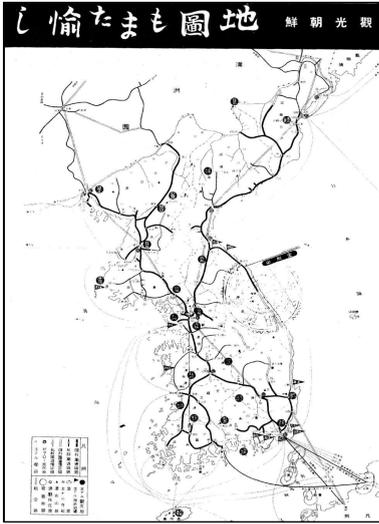
이와 같이 한센사업에 대한 조선 대중의 적극적 참여는 황태후의 ‘자비’에서 촉발된 것으로 일본인이 오히려 본받아야 할 모범사례로 포장되어 갔으며, “조선 통치에 있어서 최선정(最善政)의 하나다”(朝鮮總督府, 1935(10): 933)라고까지 거론될 정도로 식민지통치에서 상징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과정은 소록도갱생원<sup>18)</sup>이라는 제국의 상징물 구축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 제4장 문화적 자원으로서는 소록도갱생원

조선나예방협회는 소록도 전체를 매수하여 1933년 6월을 기점으로 환자가 아닌 900여명의 주민 전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센인 격리섬을 완성했다(瀧尾英二, 2001a: 63). 4대 원장인 수오 마사스에(周防

18) 1916년 소록도자혜의원(小鹿島慈惠醫院)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소록도 한센인 격리시설의 초대 원장은 아리카와 도오루(巖川亨)이다. 이후 제 2대 원장으로 하나이 켄치(花井善吉)가 부임(1921.6)한다. 3대 원장인 야자와 슌이치로(矢沢俊一郎)의 부임(1929.12) 후에는, 섬 내의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도 병행했다.(瀧尾英二, 2001b: 5-6)

正季)가 취임(1933.9)한 이후는 수용환자가 급증하여 소록도 확장공사가 실시되었고 원내 규칙을 강화하여 관리 통제가 심해졌다.<sup>19)</sup> 그리고 단종(斷種, 정관절제) 수술이 1936년 4월부터 부부 동거의 조건으로 실시되거나 ‘처벌’로서 이루어졌다(瀧尾英二, 2001a: 185). 1935년에는 소록도 내에 형무소까지 설치될 정도로 수용소 안의 권력은 막강해졌다.<sup>20)</sup>



<그림 1> 소록도가 표기된  
조선지도(『觀光朝鮮』 2권2호)



<그림 2> 『觀光朝鮮』 2권2호 속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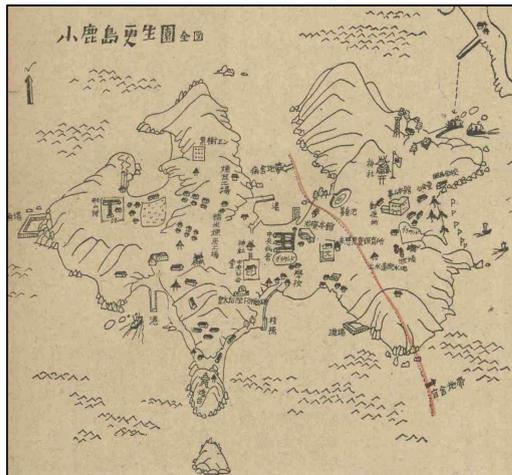
이렇게 하여 식민지통치의 정수(精髓)처럼 여겨진 소록도는 관광지화 되었다.

- 19) 수오의 환자에 대한 폭력적인 식민지의학 행사는 결국 1942년 6월 20일 혹독한 관리에 반발한 조선인 환자 이춘상이 수오원장을 칼로 찢어 죽임으로서 막을 내린다. 이후 5대 원장으로 조선나 예방협회 상무이사였던 니시키 산케이(西亀三圭)(1942.8)가 부임했다. 그는 1923년 총독부 위생과에 근무한 이래 계속 조선총독부의 한센정책을 담당해 왔고, 한센병 근절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소록도 전체 매수를 지휘 지도했던 인물이다. 니시키는 환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환자들이 싫어했던 직원을 해고하고, 환자에게 경어를 사용했으며, 수오의 동상도 국가에 헌납한다는 명목으로 없애기도 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전쟁에 패한 3일 후 니시키는 일본의 패전 소식을 환자들에게 알린 후(瀧尾英二, 1996: 284), 식민지의학은 막을 내린다.
- 20) 소록도갱생원의 형무소에 관하여는, “일본에서 곤란해 하고 있는 문제는 나환자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제대로 완비된 광주형무소의 지소(支所)로 감방, 조사실, 진료실이 있고, 직원도 소록도갱생원 통제 하에 매우 양호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이상적이다.”(遊佐敏彦, 1940(12): 5)의 내용을 통해 이상적인 장소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광지화 되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대한 ‘미화’가 필요하다. 방문객들이 감동하고 깊은 감상에 젖으며 추억으로 남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1939년 6월 창간된 관광잡지 『觀光朝鮮』(1941년, 『文化朝鮮』으로 개제)은 일본관광협회 조선지부에서 만든 일본어 잡지이다. 이 잡지 1940년 3월호에 소록도가 소개된다. 조선의 관광지 지도에는 많지 않은 지명 표기 중에서 소록도가 명기되어 있으며, 마쓰다 레이코(松田黎光)의 조선여인의 그림은 조선으로 관광객을 초대하는 듯하다(그림 1, 2 참고). 이 잡지는 서두에 광고(백화점, 개봉될 영화)와 사진, 일러스트 등을 통해 잡지를 조감할 수 있는 특별 사진코너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록도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소록도의 일상을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한다.



<그림 3> 소록도의 봄  
(『觀光朝鮮』 2권2호)



<그림 4> 소록도 지도(『文化朝鮮』 4권3호)

소록도는 인류가 인류에게 바치는 눈물어린 성지(聖地)이다. 6천명의 천형(天刑)병자는 훌륭한 풍경과 완벽한 시설에서 ‘수명의 비애’를 잊고 인생을 즐기고 있다. 여기에도 소록도의 봄은 있다.(『觀光朝鮮』 1940(3), 특별 사진코너)

또한 「소록도의 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거나, 금강산, 주을온천과 같은 관광지와 나란히 소록도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보아 조선 관광 상품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자인 미네야 이치타로(峰屋市太郎)는 소록도를 ‘천연

의 미도(天然の美島)’라고 소개하고 그 여정을 신는다.

경치가 뛰어나고 해산물이 많다. 맑은 물이 넘치고 천형(天刑)이라고 불리는 이 괴로운 환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천연의 미도이다. 이들의 생활에는 즐거움과 밝은 기운이 넘치는 것이 느껴진다.

(중략)

나는 이전에 사회에서 만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몰랐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온화하고 따뜻한 눈빛을 보았으며 감사와 기쁨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의 바른 몸짓에 차림도 정결하다.(『觀光朝鮮』, 1940(3): 44)

소록도 방문객의 글에는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유쾌(愉快)’ ‘기쁨(喜び)’ ‘즐겁다(楽しい)’ 등의 감정 표현이 빈출한다. 또한 『文化朝鮮』은 1942년 5월호를 「소록도 특집호」로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록도에 대한 다양한 소개뿐만 아니라 직접적 방문을 유도하는 소록도의 상세한 지도와 교통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많은 방문객들은 초청 또는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소록도를 여행하고 글을 남겼다.

또한 소록도는 “황실과 이왕전하의 거액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민간의 미증유의 동정과 관계당국의 심대한 원조에 의해 예상외의 기부금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제 1회 조선 문화상」 수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소록도 원장이 거론될 정도라고 되어있다(『文化朝鮮』 1942(5): 40). 이미 문화적 관광지로서 형상화된 것이다. 소록도를 소개할 때에도, 당시 유럽에도 알려진 무용가 최승희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을 거론하면서, 국제적인 위치의 조선 유명인과 같은 수준의 시설이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한다.<sup>21)</sup>

이와 더불어 갯생원 내의 시설 정비와 신축은 한센인들의 노동에 의한 수입을 통해 대부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文化朝鮮』에는 환자들이 ‘황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노역을 나가 그 수익금을 갯생원에 내고, 직원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여 소록도 시설확장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21) 가와소메 요시노부(川染義信)의 방문기에서는, 소록도 소개에 앞서 “최승희가 태어난 곳이자 손기수를 낳은 고향으로 친숙한 조선!!(川染義信, 1936: 3)이라는 문구를 넣어 독자를 주목하게 한다.

(『文化朝鮮』 1942(5): 42). 또한 “섬은 무너져가는 환자의 마을에서 감격에 불타는 근로의 천지로 일변했다.”(『文化朝鮮』 1942(5): 45)는 내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환자의 ‘감격’이 일구어낸 갱생원 내의 부가가치에 대해 자랑하고 있다. 『文化朝鮮』의 기자와 소록도 내의 근무자들과 좌담회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강조되는 점은 소록도의 한센병 연구의 수준이 ‘세계 제일’이라는 것과 환자들의 ‘특별한 근로실천’에 관한 것이었다. 소록도 근무자 다카하시(高橋)라는 인물은,

환자의 치료에 있어 정신의 전환은 중요합니다. 근로에 의한 구원, 거기  
에 이 갱생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병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중략)  
이것은 완전히 정신력입니다. 감사 관념의 힘입니다. —올해의 수확량 자랑.  
일반인의 세반 반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文化朝鮮』 1942(5): 51)

여기에서는 병을 잊을 정도로 노동을 하는 것이 최대의 치료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반인들을 훨씬 능가하는 이들의 생산량은 소록도의 수익창출과 시설확충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이 좌담회에서도, 소록도를 ‘인류가 인류를 구원하는 장소’, ‘세계 제일’, ‘근로에 의한 구원’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감동’을 유발하는 장소로 소개한다. 그리고 소록도 방문자들의 감동을 증폭시키기 위해 대규모 한센인이 동원되어 ‘농악놀이’ 공연이 실시되기도 했다.<sup>22)</sup>

소록도는 방문자들에게 ‘감사·감동으로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라는 축제와도 같은 경험을 선사하고, 이제 일본이 서양의 근대의료를 추종하는 것에서 벗어나 비교 우위에 있으며,<sup>23)</sup> 나아가 제국일본 건설의 든든한 발판이라는 것을 확인시킨다. 일본 ‘구라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미쓰다 겐스케(光田健輔)는 소록도를 방문하여 감탄하고 이것이 ‘대동아공영권’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다(光田健輔, 1942(8): 2). 문화의 장으로 거듭난 소록도는 세계에 일본을 알리는

22) 미쓰다는, “풍년춤(豊年躑) 대열이 뿌우뿌우하는 소리를 내고, 북을 두드리며 200명 정도 입장했다. 빨강·초록·노란색 천 조각으로 장식한 의상을 입고 깃털로 만든 모자를 쓴 머리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손을 흔들고, 발로는 춤을 추며 흥겨운 몸짓으로 대열을 만들면서 돈다. 일본의 본오도리와 비슷하다.”(光田健輔, 1940(10): 5-6)며 한센인들의 농악놀이 광경을 설명한다.

23) 조선총독부에서는 서양인에 의한 한센병요양소와의 비교 검토한 일본의 한센정책의 광복할만한 결과물을 꾸준히 제시했다. 예를 들어 『조선사회사업요람』에는 기독교관련 요양소의 설립이 소록도갱생원 보다 일찍 세워졌지만 소록도 시설의 규모가 병원종사자, 환자 수, 시설용지면적,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드러낸다.(朝鮮總督府, 1936(3): 125-135)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 결론

조선에서 의료행정의 주도권을 쥔 일본은 한센정책의 대중의 참여에 대한 방법적인 노력으로 조선인의 감정에 주목하여 미디어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서양의 의료진과 이들의 활동을 견제하고 일본식 한센정책을 구축해 갔다. 여기에는 국제적 조류와는 다른 ‘강제 격리 고수’라는 일본만의 방식이 적용되었다(藤野豊, 2006: 12-13). 이는 ‘근대적’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이라는 수식어로 한센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각인시키고 격리만이 해결 방법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이것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한 장소가 조선이었다. 각 종 잡지나 신문에 한센인 관련 기사나 논설은 조선인의 ‘감정’을 자극하였고,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적극적 활약과 대중의 협조는 예상외의 기부금 실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의 눈으로 본 피식민지 한센사업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고, 도리어 일본인의 귀감이 될 정도였다. 이는 황태후의 ‘자비심’에 촉발된 대중의 ‘동정심’의 발현이라는 식으로 재포장되었다. 이런 과정의 산물인 ‘세계 최대의 격리시설 소록도갱생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위대한 성과로 여겨져 관광지화 되었다. 이는 한센인 격리시설 마련을 위한 기부에 저조한 실적을 보였던 일본열도의 대중들을 각성시키고, 일본대중의 자본을 모으기 위한 장치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일본에 의한 한센사업은 질병에 대한 치료와 개호가 아닌 한센인 격리와 노동력 착취를 위한 것이었다. 즉 ‘질병(치료)’ 문제가 아니라 한센인 격리수용을 통한 사회통제 체제의 모델로서의 ‘정치(치안)’ 문제로 다루어졌고, 이는 소록도 관광지화를 통해 대중을 섭렵하기 위한 ‘문화’ 문제로 재포장되어 갔다. 소록도는 국가와 대중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문화의 전시장’ 구축 과정이자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의 한센인 차별의 문제는 국가(일본의 정치가)/ 국민(피식민자나 일본의 대중)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실체를 가진 대중의 삶의 흔적을 통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서기재(2017) 「한센병을 둘러싼 제국의학의 근대사」, 『의사학』 26(3), 대한의사학회, pp. 417-453.
- 김성리(2013) 「한센인의 생애구술과 치유」, 『의사학』 22(2), 대한의사학회, pp.389-419.
- 김미정(2012) 「나환자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조선총독부의 나병정책: 1930~40년대 소록도갱생원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역사문화학회, pp.429-466.
- 김기주(2011) 「소록도 자혜의원 나환자정책의 성격」,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pp.221-274.
- 한순미(2010) 「나환과 소문, 소록도의 기억」,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역사문화학회, pp.441-476.
- 야마다 간토(2010)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화와 일본어교육」, 『제 2기 한일공동역사 연구 보고서 4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pp.261-262.
- 이병례 외(2006) 『소록도 한센병환자의 강제노역에 관한 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pp.1-113.
- 국가인권위원회(2005)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pp.1-753.
- 국립소록도 병원(2005) 『국립소록도 100년의 기억』, 생각습표 휴먼컬처 아리랑, pp.1-234.
- 정근식(2005) 「일제말기 소록도 갱생원과 이춘상사건」, 『역사비평』 72, 역사문제연구소, pp. 330-359.
- \_\_\_\_\_ (2002) 「동아시아 한나병사를 위하여」, 『보건과 사회과학』 12, 한국보건사회학회, pp.5-41.
- \_\_\_\_\_ (1997a) 「식민지적 근대와 신체의 정치」, 『사회와 역사』 51, 한국사회사학회, pp. 211-266.
- \_\_\_\_\_ (1997b) 「한국에서의 근대적 나 구료의 형성」, 『보건과 사회과학』 1(1), 한국보건사회학회, pp.1-30.
- 국사편찬위원회(2005) 『구술사료선집 1, 한센병, 고통의 기억과 질병 정책』, 국사편찬위원회, pp.1-308.
- 藤野豊(2006) 『ハンセン病と戦後民主主義』 岩波書店, pp.12-13.
- \_\_\_\_\_ (2001) 『いのちの近代史』 かもがわ出版, pp.1-685.
- 奥野克巳(2006) 『帝国医療と人類学』 春風社, p.27.
- 池田光穂(2003) 「帝国医療の予感—その修辞上の戦略—」, 『九州人類学会報』 30, 九州人類学研究会, pp.119-122.
- 滝尾英二(2002)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ハンセン病資料集成(第6巻)』, 不二出版, pp.309-310.
- \_\_\_\_\_ (2001a) 『朝鮮ハンセン病史—日本植民地下の小鹿島』, 未来社, p.63, 185.
- \_\_\_\_\_ (2001b)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ハンセン病資料集成(第 1巻)』, 不二出版, pp.5-6.
- \_\_\_\_\_ (2001c)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ハンセン病資料集成(第 3巻)』, 不二出版, p.1, 219.
- \_\_\_\_\_ (1996) 『小鹿島「癩」療養所と周防正季』, 広島青丘文庫, p.284.
- 見市雅俊他編(2001) 『疾病・開港・帝国医療』 東京大学出版会, p.26.
- 光田健輔(1942.8) 『愛生』, 長島愛生園, p.2.

- \_\_\_\_\_ (1940.10) 「小鹿島更生園參觀」, 『愛生』, 長島愛生園, pp.5-6.
- 東亜旅行社朝鮮支部(1942.5) 『文化朝鮮』, 東亜旅行社朝鮮支部, p.40, 42, 45, 50, 51, 57.
- 遊佐敏彦(1940.12) 「朝鮮を旅して」, 『日本MTL』, Nippon mission to lepers, p.5.
- 朝鮮總督府(1940.10) 『施政三十年史』, 朝鮮總督府, p.385.
- \_\_\_\_\_ (1936) 『朝鮮社会事業要覽』, 朝鮮總督府学務局社会課, pp.125-135.
- \_\_\_\_\_ (1935.10) 『施政二十五年史』, 朝鮮總督府, p.6, 512, 931, 932, 933.
- 日本旅行協會朝鮮支部(1940.3) 『觀光朝鮮』, 日本旅行協會朝鮮支部, pp.42-44, 48.
- 西亀三圭(1938.1) 『鮮滿之衛生』, 朝鮮總督府警務局, pp.16-17.
- \_\_\_\_\_ 編(1935.10) 『朝鮮療子防協會 事業概要』, 朝鮮癩子防協會, p.3, 6.
- 下村海南(1937.11) 『日本MTL』, Nippon mission to lepers, p.2, 16-17.
- 日野春吉(1936.9) 『同胞愛』, 朝鮮社会事業研究会, p.21.
- 川染義信(1936) 「朝鮮癩療養所 小鹿島更生園を訪ふ記」, 『日本MTL』, Nippon mission to lepers, p.3.
- 今井田清徳(1935.11) 『日本MTL』, Nippon mission to lepers, p.6.
- \_\_\_\_\_ (1931.3) 『日本MTL』, Nippon mission to lepers, p.7.
- 池田清(1933.5) 「朝鮮癩子防協會 第1会 評議員会開催: 池田理事長の事業報告」, 『朝鮮公論』, 朝鮮公論社, p.35, 36.
- 竹内一(1932.4) 『朝鮮社会事業』, 朝鮮社会事業研究会, p.3.
- 小串政治(1921.8) 「癩患者収容に関する件」, 『朝鮮衛生行政法要覽』, 咸鏡南道, pp.250-253.
- 村田正太(1921) 「朝鮮における救癩問題」, 『日本及日本人』(11) 政教社, pp.32-35, 33-34.
- Seo Gijae(2022) 「The formation of policy on Hansen's disease in Korea, and the history of patients' self-expression」, 『INTER-ASIA CULTURAL STUDIES』 23(1), ROUTLEDGE JOURNALS, pp.45-67.
- ※ 잡지자료는 참고문헌에 기입하였고, 표나 인용의 신문자료는 『東亜日報』, 『朝鮮日報』 『朝鮮朝日』 『京城日報』 『朝鮮毎日』을 이용(날짜는 각주표기)하였다.

DOI : 10.18075/jcs..82.202204.129

## ■ Abstract

### Hansen's Disease Control Policy and Sorokdo-Koseien seen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edia

Seo, GiJae

This study examines the reality of Hansen policy and its contents, focusing on magazines and newspaper articles pu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mperial Japan, which was a latecomer to modern medicine, was conscious of Western missionari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Hansen's disease-related projects in Joseon, where Japan recognized that it was very important to deal with the feelings of the Joseon public. This recognition was also utilized in the process of Hansen's disease-related projects. In Joseon society, patients with Hansen's disease were also considered as a social issue, and public participation was required to overcome it. At that time, Sorokdo Island was the place where the strict quarantine policy of Imperial Japan, the sympathy/disgust of general society, and the hardships of the patients' life were all reflected, and it was designated as a quarantine sit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rocess by which the designation of this island as an absolute quarantine site came to be cited not only as the best example of Japan's good governance but also became a cultural resource.

Key words : Hansen's Disease, Sorokdo-koseien,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Mass Media, Display.

## ■ 日本語抄録

### 日帝強占期のメディアを通じて見たハンセン政策と小鹿島更生園

徐 己才

本稿は日帝強占期に発行された雑誌及び新聞記事を中心として当時のハンセン政策の実体とその内容について考察する。近代医学の後発走者であった日本は、朝鮮でのハンセン事業において西洋の宣教師たちを意識していたし、ここで朝鮮人の感情を扱うことが非常に重要であることを捕らえた。これはハンセン事業を進行する過程で活用された。また、朝鮮社会でもハンセン病患者は社会的問題とみなされ、この問題を克服するため、大衆の参加が要求された。朝鮮大衆は患者たちに同情あるいは嫌悪という感情を発散したが、このような現状は非患者のみならず患者にまでも隔離生活を積極的に希望する雰囲気を形成した。当時、日帝の「絶対隔離」政策と、一般社会の同情/嫌悪、そして患者の生活苦が相まって完成された場所が小鹿島更生園であった。この研究は、このような絶対孤立の島の構築が日本最大の善政と標榜され、文化的資源化されていく過程について探求している。

キーワード：ハンセン病、小鹿島更生園、日帝強占期、メディア、展示

<필자인적사항>

성 명: 서기재

소속(직위): 건국대학교 아시아 디아스포라연구소 조교수

연락처(이메일): seogijae@konkuk.ac.kr

투고마감일: 2022.1.30

심사개시일: 2022.2.15

게재확정일: 2022.3.15